

'가을구르미 그린 남원애향기'

가을여행주간 맞아 문화버스
한복패션쇼·골목투어 등 다채

남원시에서는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색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 추진은 남원시가 가을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을구르미 그린 남원애향기'라는 주제로 TV속 활영지를 찾아 떠나는 프로그램이며, 남원여행 문화버스, 한복패션쇼, 골목투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영화 '구르미 그린 달빛' 촬영지로 알려진 광한투원에서는 탤런트 박보검, 김유정의 일공달공 사랑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한복체험과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군주와 궁려의 상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남원문화버스로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 서도역과 연계한 한복문화관 코스, 운봉 동편제코스 등 2개 코스로 운영되며, 남원여행문화버스에는 관광객이나 시민이 모두가 참여(문의063-634-333)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남원에 촌 일원에서는 프리마켓 운영과 함께 해설이 있는 골목투어도 진행되며, 야간에는 광한투원 완월정에서 (사)미즈코리아 한복패션쇼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 스타일 다화(차)를 전개해 야경을 빛내 줄 체험으로 진행한다.



남원시가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색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8 가을여행주간인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회에 걸쳐 화차 별다른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으로, 형형색색의 가을향기가 짙은 남원여행! 단 한장의

카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전북투어패스와 함께 하면 더욱 추억이 남는 가을여행이 될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음악협회 임실지부가 주최한 2018 길거리 음악회가 지난 18일 임실시장 주차장 야외무대에서 임실군수를 비롯한 지역 음악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작지만 따뜻한 임실의 밤'

임실시장 야외무대서 흥겨운 공연 선보여

한국음악협회 임실지부(지부장 이동성)가 주최한 2018 길거리 음악회가 지난 18일 임실시장 주차장 야외무대에서 임실군수를 비롯한 지역 음악 동호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서 군민들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감성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본 공연은 운수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난타, 팝페라 공연, 우쿨렐레 합주, 라인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여 임실군민들에게 선보였으며, 특히 음악동우회 회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익힌 재능을 나누며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음악협회 임실지부 이동성 지부장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모두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어 기쁘다"며, "작지만 따뜻한 음악회가 계속된다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임실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심민 군수는 "길거리음악회가 군민들이 즐기는 가운데 성대히 열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전라도 팽과리 명인들의 이야기 속으로

'고창농악 인문학콘서트-전라도의 팽과리' 25일 고창농악전수관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의 악기를 돌아보는 '고창농악 인문학콘서트-전라도의 팽과리'가 오는 25일 목요일 오후 8시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인문학 콘서트-전라도의 소고 편'에서는 농악에서 소고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옛 선생님의 모습과 현재 소고잡이들의 공연으로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소고를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고창농악 인문학콘서트-팽과리편에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 남원농악 예능보유자인 류명철 명인을 초대하여 전라좌도 농악 팽과리의 특징을 알아본다.

류명철 명인은 올해 만76세로 남원농악보존회장과 남원시립농악단장 그리고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등 전라좌도 농악을 옮기게 전수하고있는 명인이다.

그리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 부안농

악 예능보유자 허나금추 명인의 예술세계를 돌아보며 전라우도농악 팽과리를 알아본다. 허나금추 명인은 1988년부터 전북도립국악원의 교수를 역임하며 부안, 고창, 전주 등에서 활발하게 전수활동을 펼쳤다.

전라도의 농악은 크게 우도농악과 좌도농악으로 나뉜다. 우도농악의 팽과리는 뽕뽕하게 구슬로 연결하여 끝에 큰 띠를 붙여 화려하게 보이는 뽕상모를 활용한 부포놀음이 있고, 좌도농악의 팽과리는 우도의 부포와는 달리 부들부들한 작은 띠가 달려있는 부들상모를 부드럽게 떨어트리고 좌우로 돌려가며 묘기를 보이는 부들상모놀음이 있다.

이명훈(고창농악보존회장)은 "이번 인문학콘서트에서는 나긋나긋하게 자글거리는 쇠가락에 춤을 추는 듯한 뽕상모와 부들상모에 대한 이야기와 공연을 감상하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특히, 안타깝게도 지난 6월 타계한 허나금추 명인을 추모하고 예술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고 했다.



허나금추 명인

류명철 명인

한편,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 다양한 콘텐츠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는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재청과 고창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고창농악 큰 잔치'를 시작으로 6월 28일 '고창농악 인문학콘서트-전라도의 소고'와 7월 26일 '아시아 민속춤 축제'가 펼쳐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국악단, '달님에게 소원을 말해 봐' 상설 공연

내일 정읍사공원에서 올해 마지막 공연

정읍시립국악단(단장 주호중, 이하 시립국악단)의 10월 상설공연 '달님에게 소원을 말해 봐'가 내일밤 7시에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시립국악단에서는 국악의 대중화와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달님에게 소원을 말해 봐' 공연을 정읍사공원 야외무대에서 매월 보름밤에 실시해왔다. 야외공연인 관계로 이달 23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올해 공연은 막을 내린다.

국악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시립국악단의 2018년 마지막 상설공연 무대인만큼 시립국악단의 혼신을 다한 국악공연과 함께 인기 가수 변진섭, 정주를 초청하여 붉게 물들

어 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시민들이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연은 시립국악단의 창작곡 '정읍이리랑'을 시작으로 정음출신의 젊은 국악인 송은주 양의 판소리 '심방사 눈 뜨는 대목'이 공연될 예정으로 우리 춤과 우리 가락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숙녀에게', '희망사항', '너에게로 또 다시'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가수 변진섭이 상설공연 무대에서 이 가을 시민들께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음시장은 "깊어가는 가을 시민들께서 국악공연도 보시고 아름다운 정읍사공원 경관도 감상하시며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